東亞日報
發行所 京城府花洞一三八番地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illegible]

民族的解體의危機

朝鮮人은다猛省하라

一

經濟는 恐慌의極에達하엿고 米價는暴落하엿고 農民의困窮은極度에達하엿고 商人의去來는杜絶되고 모든社會的, 文化的, 民族的運動은休息狀態에 빠지엇다. 죽엇다. 다 죽엇다. 이것이 近來에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하는소리이다. 「世上이 엇더케나 되라는고?」 식골 農老들도 新知識階級의 人士들도 對할때마다 무슨 新消息을 苦待하는듯한 가엽슨 表情으로 뭇는다. 질기던 가난도 인제는 더 못견딜것이다.

二

一般人民뿐이아니다. 或은文筆에, 或은敎育에, 或은社會運動에 從事하는 知識階級의 人士들도 이제는 絶望的 語調로 「엇지할수업다」고 斷言해 버리는 이가 多數하게 되엇다. 그래서 朝鮮의 思想界, 文化事業界는 深秋의 空山과가치 蕭條하고 落莫하게 되여 거의 一點의 活氣를 차즐수가 업게 되엇다. 모든運動은 疲勞하엿고 支離하엿다. 모든運動은 태엽풀린 時計모양으로 늘것다. 海內나 海外나 京이나 鄕이나 只今 朝鮮은 다만 經濟的 恐慌에만 陷한것이 아니오 同時에 思想的恐慌에 陷한것이다. 이것은 眞實로 戰慄할 現象이니 이야말로 民族的生命을 脅威하는 重大危機라 할것이다.

三

經濟的으로나 思想的으로나 이러케 絶望的恐慌에 싸진 結果로는 오직 두가지 自然의 結果를 豫想할것이다. 첫재는 民族을 爲하야 活動하던 志士들은 따라서 隱遯生活을 取하게 될것이오 모든 公的興味를 일허버리고 오즉 私的利慾에만 汲汲하게 되며 마침내 民族的인 모든運動을 不可能하게 할것이오. 둘재는 志士나 民衆이 前途에 對한 絶望의 餘에 自暴自棄에 흘러 至今 모든 計劃과 努力과 節制를 버리고 各種의 「되는대로」의 行動을 取하게 될것이다. 大勢가 이러케 되면 비록 少數의 剛毅하고 熱誠잇는 志士가 死力을 다하야 奮鬪한다하더라도 到底히 渙散하고 潰滅하는 人心을 잡을수업서 마츰내 民族的 統一意識이 解體되는 悲境에 陷할것이다.

四

이 民族的 統一意識의 渙散潰滅의 過程은 이미 始作된지가 二三年은 되엇슬것이다. 原來 朝鮮民族에게는 猶太族의 宗敎와 가튼 傳統的인 堅固한 結紐 또는 核心이 업섯고 오직 血族的 地理的 及 政治的 結紐가 잇엇슬 뿐이엇다. 여러世紀동안 異民族과 接觸함이 업시 太平속에 지나온 朝鮮民族은 血族的인 同性族의 團結, 政治的 利害를 가치하는 班常 四色의 團結的意識은 發達하얏스나 全民族의 意識은 發達할 機會가 업섯다. 朝鮮民族中에 純民族的意識이 發顯하고 發達하기 始作한 것은 —그는 政治的 核心을 失하고 異民族의 統治下에 들어간 以後부터엿다. 그럼으로 朝鮮民族의 民族的意識은 비록 强烈하다 하더라도 아직 組織的 固定的인 것이라고는 할수업다. 하물며 이것을 破壞하랴는 힘은 날로 그 壓力을 加함에랴.

이러한 理由로 朝鮮民族은 아직 確然한 核心이 업는 極히 散漫한 團體다. 完全한 中樞神經을 缺한 四肢百體의 團合이다. 그中에서 在來로 若干의 志士階級이 極히 不充分한 核心이 되어 朝鮮民族의 團體化運動을 維持하여온 것이다.

五

그런데 이 不充分한 核心이 되엇든 志士階級조차 (內外를 勿論하고) 上述한 徵候로 渙散潰滅의 過程에 잇고 따라서 衰微하게나마 일워지랴든 民族的 團結의 輪廓도 슬어지는 모양으로 가엽시 슬어지려 한다. 만일 이대로 放任하면 二千萬의 朝鮮民族은 아모 統一의 核心도 結紐도 업는 「散民」이 되어 버리고 말것이니 [illegible]

六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時急히 民族的 團結의 核心을 만드는 것이다. 民族的 理想을 세우고 그 理想을 實現할 計劃을 規定하고 그 計劃을 實行할 一大團結을 組織하는 것이다.

그 根本的要件은 民族의 救濟에 關한 모든 事業이나 運動을 團體的, 民族的으로 하는 것에 잇다. 朝鮮의 産業을 建設하는 것이나 人民의 敎育을 振興하는 것이나 또 人民全體의 正當한 權利를 主張하는 것이나 朝鮮民族의 살기에 必要한 모든 事業이나 運動은 全民族의 團體的인 [illegible]

七

모든 朝鮮의 志士와 民衆에게는 只今 絶大한 義務가 노혀잇다. 愕然히 反省하야 우리가 엇더한 大危機에 處한 것을 自覺하고 猶然히 일어나 엇지하면 이 危機를 脫出할가를 考究하야 할것이다. 嘆息을 그치자. 絶望과 落心은 自殺의 길이다. 우리는 全心力을 다하야 活路를 案出하여야 할것이다. 우리가 一齊히 猛省發奮하는 날 우리의 前途는 光明이다.

朝鮮史槪講 (三五)

杜撰生 李丙燾

第一篇 上古史(續)

第八章 三國時代의文化(續)

(四)佛敎의傳來(續)

法興王의다음으로서 眞興王은 信佛의念이 深하야 興輪寺와 皇龍寺等을 이르키고 皇龍寺丈六三尊像을 鑄하얏스며 晩年에는 王이 髮을 剃하고 僧衣를 着하고 스스로 法雲이라 號하며 王妃도 亦是 이를 본바다 髮을 祝하고 比丘尼가 되얏다 한다. 佛法의 盛行과 함께 名僧高師도 衆出하얏섯는대 그中 圓光, 慈藏(以上은 眞平善德二王時人)과 元曉, 義湘(以上은 武烈文武二王時人)等은 가장 有名하다. 이들은 다 中國에 遊學하야 深遠한 抱負를 가젓다. 圓光法師는 成實宗과 涅槃宗과 및 攝論宗을 傳하고 慈藏律師는 唐에서 歸朝한 後 數年에 梁山通度寺를 創하고 元曉 義湘 兩大師는 華嚴宗을 弘布에 各々 努力하얏섯다. 더욱 元曉는 東方佛敎의 大宗師로 그 著書中 金剛三昧經論은 今日외지 存傳하야 온다. 高句麗와 百濟에서도 佛敎가 非常한 勢力으로 上下를 風靡하야 相當한 發達을 致하얏슴으로 名僧과 大和尙이 頗々히 이러나고 또 高僧을 中國各國에 派遣하야 法을 求하고 或은 그 與國에 派遣하야 法을 傳播하는等 努力과 獎勵는 決코 新羅에 지지 아니하얏다. 그러하야 百濟의 聖王과 가튼이는 旣述한 바와 가치 佛像과 經論을 日本에 보내여 비로소 그 法을 傳하고 [illegible] 等은 日本에 招聘되야 各々 佛敎弘通에 盡力하얏다 한다. (日本書紀 欽明天皇十三年十月條 『百濟聖明王(即聖王)遣西部姬氏達率怒唎斯致契等獻金銅釋迦佛一軀幡蓋若干經論若干卷 別表讚流通禮拜功德云 是法於諸法中最爲殊勝 難解難入 周公孔子尙不能知 此法能生無量無邊福德果報……(下略)』……)

(五)美術, 工藝, 音樂及其他

佛敎興隆에 딸어 三國은 塔의 造營, 佛像의 鑄造가 盛히 行하고 同時에 建築, 彫刻, 繪畵, 鍍金術 및 其他工藝上에 큰 影響을 주어 藝術上 非常한 進步發達을 致케 하얏섯다. 더욱 新羅의 武烈文武兩王의 半島統一의 業을 營함에 와서 그 後 代間은 實로 半島藝術史上 黃金時代를 이루게 되얏섯다. 三國時代의 遺物에 依하야 보면 勿論 規模와 樣式이 多少 中國 諸王朝時代의 것을 模倣한 것도 만코 또 或 西域 印度 美術의 趣味를 加한 者도 만치만 또한 朝鮮 獨特한 樣式과 趣味를 가진 것도 만타. 이케 그 主要한 遺物을 通하야 그 時代 藝術의 一班을 엿볼 것 가트면 爲先 近來 發掘된 三國時代 古墳內의 遺物의 主要한 者를 살피어 보면 高句麗의 古墳은 그 內部의 描畵부터 雄壯堅實하고 더욱 副葬品中 金屬細工物에 至하야는 그 精緻纖美함이 實로 後人의 눈을 놀낼 만하고 그 壁畵에도 現代 歐洲式에 彷彿한 模樣이 만히 잇고 中에도 龍鳳等 動物의 像은 모다 다 압흐로 奮進하는 活潑한 氣象을 보이어 잇다. 이로 말미암아 보면 當時 藝術의 發展은 勿論이오 그 國民의 元氣 思想如何도 可히 玩味할 수 잇다. 百濟 古墳의 描畵 壁畵 乃至 副葬品은 大槪 高句麗 系統의 것이 만치만 또한 中國 南北朝의 것을 直接 模倣한 것도 만타 한다. 新羅의 古墳도 近來 續々 發掘되야 絶代의 貴重品을 吾人의 眼前에 展覽할 수 잇게 되얏다. 더욱 昨年 九月末에 慶州 鳳凰臺 附近에서 發掘된 古物 —金冠, 飾帶, 翡翠, 曲玉, 琉璃珠, 腕環等— 은 新羅 統一 以前의 것으로 그 材料 模樣 및 그 手法의 精練이 吾人의 目을 恍惚케 하는 同時에 그 學術上 價値에 至하야도 絶大한 것이라 云치 아니치 못하겟다. 이 貴重한 大發見品은 實로 東洋考古學者, 東洋史家, 美術家에 向하야 重大한 硏究材料를 提供하고 잇다.

開城行 (十)

柳光烈

◇우리도 방부게되자◇

今年 初夏에 筆者가 暫時 上海에 寓居하얏슬 때에 友人 呂運亨氏가 此 松高織布에 對하야 『松高織布가 第一등々하야 빨사록 潤澤이 나기 때문에 揚子江 沿岸에 사는 西洋人들에게 大歡迎을 밧고 더욱々々 經濟를 崇尙하는 獨逸人이 만히 歡迎합니다』 [illegible]

[illegible] 此松都高等普通學校에는 附屬普通學校가 잇서 千數百餘名을 收容하고 잇다 하니 此校의 名으로 收容한 凡 千六七百名이 엇지 西京의 偉觀이 아니랴.

◇白蔘製造場求景◇

松都高等普通學校를 다 — 보고 白蔘製造場으로 向하얏다. 누구든지 松都하면 人蔘이 聯想되는 것이 마치 米國하면 돈만흔 나라가 聯想되는 것과 갓다. 그러나 이곳 人蔘은 年前부터 總督府에서 專賣局出張所를 設하고 人蔘中 第一 優秀한 것만 쪄서 紅蔘을 만들고 其餘는 人民의 自由로 白蔘을 만든다는데 이 白蔘製造場은 그 紅蔘 나마지의 蔘을 그대로 말리는 곳인바 蔘業組合의 經營으로 專賣局의 監督을 밧[illegible]

너희들은무엇을어덧느냐 (六)

廉想涉

(중편) 二一九

『아와만해두그려치……』

도홍이는 손님들이 마루우로 올려와서 로리人상에 둘러안진 뒤에 등을 타서 일어버렷다.

『……누가 집안에 미들만한 사람이 잇스면 아무못하는 손님을 안방으로 들여노흐라 버둥々 잡바젓게 하겟서요?…… 드러와 보니와 어떠케 화가 나는지…』

이소리 한마듸가 하고 십허서 이 계집은 이때까지 룻담도 하야 보고 쌋종도 내어보고 쉬는 사정도 하얏고 술 외에지 사내인 것이다.

『그자는 누구길네?』

도홍이가 별서 짐작하고 잇는 질문이 순탄한 말씨로 중환이의 입에서 나왓다.

『누어번로리人집에서 만나기는 하얏지만 성명도 모르는 잔데 요새 별안간 지근덕々 쏘차다니면서 의례히 주인 업는 방에 드러와 럭드러눕자를 안나…… 아무리 이런 영업을 할망정 참별 수 놀라갓다 가드리오니 와 질人자가 그때부터 대령을 하구 와서 업시 할머니에 또 차보내달라구 악신이가 뭐야요? 그래 하는 수 잇지아너요! 명화보기에두 쑥하구 다시 나가서 명화 하구 한잔하구 와서 보니와 그 킈잡바젓지요……』

『그래 어떡해드랍?』

『어떤 반배자 만 놈이 쑥치 나가드람!』

『반배자 라지 아느면 키는 벌서 수 낫나요? 나가라 면 나가지!』

『그래 그애 명화 두 잇섯서?』

『명화 야 웨 잇서요』

도홍이는 판장을 주듯이 말을 뚝잘르고 술 人 잔을 드럿다. 중환이는 『그럼 너혼자 내쏘치느라 구 애를 썻겟구나!』 하며 비우 쓰 면서 애를 쓰다가 애를 써서 변명을 하랴는 것을 리 해 상관업시 듯기 실흔 소리를 하는 것이 안되엇다 생각하고 얼골 담 쳐 버렷다.

명수도 중환이하고 주거니 밧거니하는 도홍이의 말에 귀를 기우 리 면서 속으로는 이리저리 궁리를 하야 보고 안 젓다. 첫재에 명화 하고 도 쫙 왓 술 때에 손이 드러와서 잇는 것을 보고 또 차버리라고 이르고 나 갓 솔 디 경 이면 엇지하야서 할 미 가 창 을 가리 우고 서서 우 리 더 러 가 달 라 다 는 듯 십 히 청하게 구 렷 술 구 ? 하는 의심 부터 만 흘 것 다.

『그러면 할미가 억지로 쇠 더 이 라 는 봉인가?』

이 러 케 도 생각하야 보앗스나 할 미 라 는 위 인 이 보통 기생에 미 가 치 거 벽 스 럽 거 나 룽 간 을 부 릴 만 큼 괴 승 스 럽 지 도 못 한 것 을 생 각 하 면 그 럿 치 도 안 흘 것 갓 다.

『아무가 와 서 누 엇 기 두 그 리 될 거 야 무 엇 잇 서? 손 님 이 기 생 人집 안 밧 에 드 러 와 서 누 을 만 하 면 웬 만 한 외 입 쟁 일 센 데 ……』

명수는 하지 안어도 조흘 말 의 라 고 생 각 은 하 면 서 도 넘 어 입 을 담 을 고 안 젓 는 것 견 연 쩍 어 서 한 마 듸 하 엿 다.

『외 입 쟁 이 면 아 무 기 생 人집 에 나 가 서 잡 바 젓 서 도 조 타 고 누 가 가 르 처 줍 듸 까?』

『누가 배워가지고 단이면서의 입하든?…… 하지만 내가 와서 잠간 누엇섯두 그럴 모양이로구나?』

하며 명수는 살짝 우서 보이엿다.

『나는 누구 길 네 저 번 부 터 밤 낫 과 부 人집 툭 닥 가 레 처 럼 내 세 시 우? 홍 々!』

도홍이 바람에 백 알 을 반 잔 식 이 나 먹은 명 수 의 얼 골 은 한 층 더 밝 개 젓 다. 그 러 나 도 홍 이 는 약 간 몸 을 뒤 로 재 치 는 듯 하 며 명 수 의 얼 골 을 살 작 견 눈 으 로 흘 겨 보 며 우 섯 다.

[illegible] 는 다 고 한 다. 南向의 窓은 어 덕 에 [illegible] 水道에는 맑은 물이 흘은다. 머 리 에 [illegible]

四海閃光

千里駒

個人事業의價値

一個人의 事業으로 世界에 稀有 되는 同時에 그 사람의 收入은 얼마나 되는고? 米國의 發明家 『에듸손』氏는 그 發明品의 價値가 一百五十五億九千九百萬弗에 達한다는데

活動寫眞 十二億五千萬弗
電話 十億弗
電車 六十五億弗
電燈 五十億弗
電氣附屬品 八億五千七百萬弗
留聲機 一億五百萬弗
電車庫 一億九百萬弗
電氣發動機 一億弗
石灰 三億七千一百萬弗
電信 三億五千萬弗

以上은 價値이나 個人의 賃金으로 米國活動寫眞의 幼年俳優 『잭키 쿠간』은 今年 八歲兒로 百萬丈夫가 되엿고 女兒 『매리 픽포드』는 一個年 俸이 五十萬弗에 達한다.

社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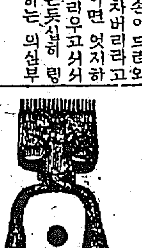
海外에서 本報를 購讀하시는 人士에게는 本報代金以外에 別로히 一個月郵送料 金五十錢을 要하는바 今後의 注文에 附하는 代金도 如右히 計算하시기 玆에 謹告함

東亞日報社

질링
斷根保證
淋病의 根治는 從來 專門家의 治療로도 困難한 것이다 本劑는 服用後 三十分이면 化學的 變化에 依하야 强烈한 殺菌力을 發하야 奏效如神하오
나 須히 本劑 一劑를 試用하야 보시옵
(主治) 男女淋疾, 五淋, 膀胱炎
輕症 十日分 壹圓
慢性 十日分 貳圓
責任保證
京城府仁寺洞七五
朝鮮婦人藥房

營業科目
各種釦系
洋服附屬品
學生服用
黑고구라
京城府鍾路二丁目九十五番地
五六商會
電話光化門七七番

營業種目
歐美帽子各種, 學生帽子製造, 王冠水木帽子, 四季洋服, 旅行各種, 新裝雜貨, 諸般婦具理髮器具
京城府鍾路三丁目九十番地
東半商店 告白


理髮器具一式
特號 一號 二號 上 中 下
[illegible]
地方注文은 即時引換代金으로 迅速히 應하오며 定價表는 請求하시면 無代進呈하옵나다

小生이 東京辯護士試驗에 及第하야 東京에서 開業하다가 今般 左記處所에 事務所를 移轉하고 一般訴訟事務를 取扱하오니 尤益愛護하여주시압
癸亥孟秋
事務所 大邱府南町十六番地
辯護士 孫致殷

貸醫院廣告
目下盛業中 某醫院主 有故移轉으로 院建物及醫療機具 一式 貸貸함
詳細는 本人께 迅速 照會하시오
釜山榮町八ノ二 尹昌換 告

消瘡紫金丹 各種梅毒, 騎馬瘡, 上下疳瘡, 諸般痔疾, 無名惡瘡, 毒腫에 神效
十五日內에 十五包를 服用하면 上記 各症을 拔根全快 保證
[illegible]
定價金 四圓 二十日分
京城府苑昌洞七番地
九轉靈砂製造藥房
主 李鎬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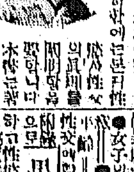
學生帽子
多言을 不要하거니와 엇던 모양으로던지 로 注文해보시오
平壤府竹典里
青年商會
定價表無代進呈

●當廿五日부터 新寫眞全部交換
▲米國코론우에루映畵 寫眞 曲藝色々 全一卷
▲米國와나會社作 喜劇 『水영의首面相』 全二卷
▲米國쿨드윙映畵 正喜劇 『酒의神이여』 全五卷
▲米國후옥크스會社作 人情劇 女市長 全五卷
▲米國와나부라사스會社作品 連續活劇 死의渦卷 全十五篇三十一卷 第五回 第九, 十篇四卷
松竹 特約社 團成社

滿天下虛者弱者病者의게懺하노라
活力素
雖積年의 難病痼疾로 百藥이 無效하고 萬醫가 無術하든 人이라도 本藥의 靈異的 偉效에는 實로 이러케 神奇한 藥이 잇는 줄은 果是 몰낫다고 異口同聲으로 嘆服들 하십니다

決斷
[illegible]
力蓄을 貳月을 服用하라
과藥이 合致하게 되얏스니 絶對로 病治할 藥이 나타낫다
速治할唯一의方途 藥이 나타낫다
神經衰弱의 大福音
京城鍾路二丁目拾八番地(東亞院北少入)
保證 製藥 內外新藥商會
三拾日分 金拾圓也 特六拾日分 金拾九圓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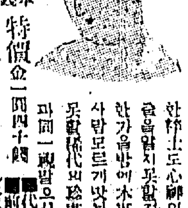
六七拾歲의青年! 二三拾歲의老人!
何故
精力絶倫 神經衰弱
[illegible]

澤田順次郞先生著
男女 性慾及性交의新研究
◎性慾은 人類의 本能이오 性交는 人生의 使命이다

[illegible]
男女 更少法 附
正價金一圓五十錢
◆代金引換은 送料二十錢

大震災當日 無代進呈
震災慰問謝禮 社員一同
[illegible]

餓鬼道
問題의奇書忽七拾版
饑餓의 虎狼과 같한 獸慾에 도步한 亂淫放縱의 享樂은 本書에 依하야 光明에 投出되야 怪奇한 場面은 讀者로 하야금 驚歎케 할은지니라

本書의 內容의 一斑
[illegible]
澤田順次郞新著
四六判 特價金一圓七拾錢
◆代金引換 送料十二錢

젊은사람. 獨身의人은不可讀!
柳亭種彦作 戀のぬれ烏 (講入艶本)
[illegible]

四六判 特價金一圓四十錢
(裸體美人寫眞)無代進呈
發行所 東京麻布區 正文社書房
振替는 目下不通하오니 送金은 小爲替나 郵便爲替로 하시오

時間略表

[illegible]

獨賠償不能聲明
賠償委員會에書簡을送致

獨逸政府는賠償委員會에書簡을送하야獨逸의賠償金支拂及賠償物品의引渡를主張로는續行코저하나現下의財政狀態로는實行키不可能하다는旨를聲明하얏더라(巴里二十四日發)

「若不認容이면國交斷絶」

‖獨逸政府에서는賠償委員에게覺書를送하야時局의調査와緩和의低減을要求한後萬一佛國이今番覺書의請求를拒否하면獨逸은佛國과國交를斷絶케되리라고政府側에서는豫言하더라(伯林二十四日發)

獨代表覺書提出中止

‖聯合國賠償委員會의獨逸代表는月曜日에本國政府로부터獨逸의支拂能力表를要求한覺書를接受하얏스나「라인란드」問題의進展에鑑하야右覺書의提出을中止하얏더라(巴里二十四日發)

라인分立失敗乎

「라인란드」의分離運動은今日까지는不成功인바「에ー사벨」을除한外의大都市에는此派勢力이及치아니하얏는데佛白兩國政府에서는右運動에充分한援助를與할意思가無하다하며又識者의多數는「라인란드」獨立國의存在는佛白兩國에서地方稅를徵收하야獨逸에對한嚴重의妨害가되리라고云하더라(巴里二十四日發)

파라친의自治宣言

‖二十四日外지巴威의一部이든「파라친」은自治를宣言하얏더라(伯林廿四日發)

漢堡騷擾死傷數

漢堡에서發起된騷擾後의秩序는恢復되얏는데右騷擾中에警官의死傷은三千百十九名에達하얏다더라(伯林二十四日發)

英米의援獨을主張
『휴스』氏演說에『쪼지』氏贊成

前英首相「로이드, 쪼지」氏는米國「시카고」에서獨逸賠償問題에就하야演說하야英米兩國은반다시協同하야獨逸을救援하자는「휴ー스」氏의主張에贊意를表하고調査機關을設置하야獨逸의實力을調査하라고陳述하얏더라(華盛頓電)

個人豫備會提唱
英國首相對佛首相

英國首相「쫄드윈」氏는個人的豫備會議를行키爲하야佛國首相「포앙카레ー」氏에게對하야倫敦으로來하도록勸告하는中인데「포앙카레ー」氏는豫히外交的諒解가確保되기外지는右勸告에應치아니하리라더라(巴里二十五日發)

獨墺首相의會商

獨逸首相「마ー크스」氏와墺太利首相「자이펠」氏의會商은來週에行케될터이며「스트레스만」氏는佛國에對하야羅馬法王의干涉을請코저「자이펠」氏와商議할意思가有하다더라(伯林二十四日發)

馬克益々慘落

獨逸馬克은英一磅八十萬馬克으로更히慘落하얏더라(倫敦二十日發)

英露接近稍進捗

英國銀行業者는協同하야英露協會를設立한後露國의食糧品을輸出하기로한바資本金은英佛伊三國의合資로할模樣으로서目下關係者의協議會를英國에서開催中인데英政府에서는表面은反露態度를支持하야日露의接近을防止코저하나內部에서는積極的으로露國에接近하더라(伯林電)

巴羅的財政會議

波羅的諸邦의財政會議는「라이가」에서開催될터인데此에參加할諸國은芬蘭, 伊索尼亞, 來維亞等이라더라(伯林電)

曹總統의對南方策

曹大總統의對南方策은高事妥協主義에出하야唐繼堯, 孫文兩氏에게對하야特使를派遣하야協商하기로하얏다더라(北京二十三日發)

廣東의曹總統排斥
勞働者及學生團의示威運動

廣東人勞働者及學生等은二十五日當地에서示威運動을行하며盛히宣傳文을撒布하야新大總統曹錕氏의不承認을絶叫하고更히現北京政府는英米兩國의後援을受한다는것이라하야國會의存立을否認하며同盟罷業을勸告하더라(廣東二十五日發)

上海議員의討曹運動

‖在上海國會議員은二十三日會合하야時局對應策을講하얏는바國會로부터代表者를廣東, 奉天, 湖南, 四川, 雲南, 貴州各省에特派하야各省首領과合同하야曹錕討伐의軍을出함을促하기로決하고其代表를選擧하얏더라(上海二十四日發)

趙譚兩軍의大激戰

趙恒惕譚延闓兩軍의戰爭은漸次로激烈케되야市外로彈丸이不絶히飛來하며住民의死傷은日로續出하더라(長沙二十三日發)

長沙遂히陷落

‖長沙는二十三日遂히陷落되야趙恒惕氏는單身으로岳州로逃走하얏다더라(上海中二十五日發)

國庫收入增加策
煙酒稅引上調査中

曹錕氏는大總統就任以來財政收入의增加를計코자腐心하야煙草及酒稅의引上을調査中이라는바尙히旅順大連으로부터産出하는鹽에對하야도稅金을賦課코자하는計劃을樹立하얏더라(北京二十五日發)

輸入增稅에抗議
中國政府對露國

莫斯科政府는今回中國으로부터輸入되는農産物, 林産物, 茶, 藥劑等에對하야從來와如한關稅外에更히輸入正稅를賦課하기로決하얏슴으로北京政府는近々莫斯科政府에對하야右의撤回를提議하얏더라(北京二十五日發)

正式交涉企待
카라한氏聲明

「카라한」氏는日本記者와會見하야左와如히聲明하얏더라(北京二十四日發)

七月卄一日「요페」氏는川上氏에게正式交涉을申請하얏든바川上氏는其必要를否認하고政府와相談한後에回答하리라云하얏슴으로八月三日에再次正式交涉을提議하얏더니川上氏는此事에關하야는回答이無하얏스나我政府에서는日本政府에서充分히應할意思가有한줄로思하는바九月二十二日芳澤公使에게도提議하얏스나아직지回答이無한데日本通信에는日本은露國의請을企待하는樣으로傳하나我等은何爲以前에申請한것이오又場所等은何處라도無關하며先次問題는日本에서正式交涉에應하야在할것이라

交涉機運稍進捗

‖日露交涉開始의機運은更히進捗되야日露兩國間一方에서發議만하면急轉하야開始케될터인데其理由는二十二日某國의某行動이그다지有力하지못한것이判明된것과露西亞가露中交涉을一時中止한所以로서露國은日本의回答을企待할理는업다는바一方에서正式으로나非公式으로發議할터이나大槪는露西亞側에서更히正式으로提議치아니하면不可할듯하더라(北京二十四日發)

朝鮮銀行券
通用禁止實現

極東革命委員會는本年十二月一日爲始하야極東露領各地에在한朝鮮銀行券의流通을禁止하기로하야日本의經濟的助力을排斥코자한다더라(海蔘威電)

復興必需物品
緊急勅令公布

震災와同時에旣히政府에서는兩三次에亘하야緊急勅令을發布하야食糧品, 建築用材其他의輸入稅를減免하얏스나復興計劃의樹立에伴하야實施되는勅令만으로는不備한點으로是等以外器具及醫療諸器械等勅令으로減免치아니한者中前勅令과關係가有하며又復興事業에必要한物品約二十種에就하야輸入稅를免除코자協議研究中인데十一月十日頃에緊急勅令으로써公布實施케되리라더라(東京電)

産業敎育其他
五大臣協議內容

現內閣의政綱政策에就하야五大臣은二十五日午後에協議한바其內容은産業과敎育及經濟의三要[illegible]

敎育應急策과
岡野文相談

罹災地에在한小學敎育의復興에就하야震災後即時省令으로써罹災民을免한小學校의合併敎授를許可하는同時에全國에對하야敎科書學用品等의應急策을講究하고一方法을講究하야서라도極히迅速히行치아니하면家庭其他狀況上或은不美한結果를生케될는지도未知임으로各種으로考慮한結果低利資金一千萬圓을補給하기로決定하얏는데此도低利를要하는以上三步乃至五步率로回收할形式으로되얏스나余의意嚮은요다만義務敎育의復舊가緊急함으로回收를豫期하고한것은勿論아니라

浮動資金吸收策

復興資金의撒布에依하야生하는勞働者階級의浮動資金吸收에關하야政府部內에서此의對策을考究中인바大體郵便貯金의利子引上, 强制貯金, 少額債券發行의三案이有한것은旣報와如하거니와其中少額債券發行에關하야特殊한關係가有한勸銀側의意嚮은大體로左와如하더라

復興資金의流動에依하야勞働者階級에浮動資金이漸次增加할것은當然豫想할바인데此의對策으로는[illegible]

『日勢力失墜의證據』
英國新根據地建造案과
露政府機關新聞의論調

莫斯科來電에依하면勞農政府機關新聞「이즈베스차」는其社說에英國에서新嘉坡海軍根據地建造案을中止코저하는議論이有한것은今日의日本은旣爲太平洋上의勢力이無케된證據로서日本今後의政策은中國及露西亞와平和協調의保持에努力할外에他道가無할터이니此가日本에서取할唯一한方途이라論하얏더라(海蔘威二十四日發)

陸軍豫算削減

陸軍에서는大正十三年度豫算에自動車學校의新設과爆擊大隊의新設及自動車隊의擴張을行할豫定으로經常部에一億八千萬圓臨時部에四千二百萬圓合計二億二千二百萬圓을計上할豫定이든바今番震災로困하야全部復舊費에[illegible]

排日熱再燃의兆候

浙江省溫州의排日團은二十二日同地日本商店의綿布價格約一萬兩을押收한後二十三日에此를燒棄하얏는바震災當時의中國人殺害說로因하야排日熱이再燃되는徵候가有하더라(上海二十四日發)

政友會改革派
態度强硬

政友會改革派有志代議士會는二十五日午後五時부터停車場「호텔」에開會川原(茂輔)氏以下四十名이出席하야左와如히協議를遂하얏더라

我黨은政界의現狀에鑑하야國家의中心勢力으로서任務를盡함이必要가益々緊急함으로思하노니幹部는深히現下의黨狀을察하고虛心坦懷하야局面刷新의措置를行하기를望함

그리고此協議의解釋은一切總裁의處置에는抵觸되지아니할事를約定하고直히總裁에對하야此決議를通達하얏는데此에對한總裁의態度가不鮮明하는境遇에는四十名이更히第二의手段을取하기를協定한바第二의手段이라는것은脫會의事인듯하더라

改革運動의內容

‖川原茂輔氏一派의政友改革運動은若總裁가諫言을容치아니하면第二의措置를取하다는旨中인데此第二의措置라는것은脫會斷行에在하든바川原氏는其實際에는四十乃至七十名의同志가連名脫黨을하리라打算中이며그리고遂히脫黨할時에는院內一隅에割據하야決戰投票權을掌握코자하는듯하더라(東京電)

拓殖事務局長
更迭發表

元田拓殖局事務局長의轉任에伴하는後任은左와如히二十五日發表되얏더라(東京電)

任拓殖事務局長(一等) 依孫一

樺太長官更迭

旣報한地方長官의更迭과共히樺太廳長官의更迭도決定되얏더라(東京電)

宮城縣知事 力石雄一郎
任樺太廳長官(一等)
樺太廳長官 永井金次郎
休職被命

發表는遲延

‖樺太長官의更迭은旣報와如히決定되얏스나某種의事情에因하야任命의發表가遲延되리라더라(東京電)

綱紀肅正의初步
地方長官異動과
下岡政務總監談

今回의地方長官異動을見하면休職者十二名中大部分은所謂政友會派의知事요다만成毛奈良縣知事北海道의兩名만은無能하다는點으로更迭된바如斯한果斷한處置에出한것은現內閣의綱紀肅正을事實로證明한것이라고云할것으로서[illegible]

新線建設中止는
全然誤傳
山內鐵相談

鐵道의建設은震災로困하야旣定計劃이던新線計劃이全部中止하게되리라는風說이傳하거나又는延期케될것과如히傳하나此는全然誤傳으로서[illegible]交通政策과地方의産業開發上으로見하야到底히不可能한事이라故로我等은從來에公債로서建設하든것을[illegible]

天圖輕鐵開通
總延長三十六哩

天圖輕便鐵路股份公司經營의圖們江岸(圖們鐵道上三峯對岸)부터開山屯龍井村에至하는第一期線三十六哩一分間은十月十四日부터一般旅客貨物運輸營業을開始하얏는바[illegible]列車運轉은二往復으로하야[illegible]旅客運賃은圖們江岸부터龍井村外지一等二元六五, 二等一元七五이오日貨로換算하면一等二圓八十錢二等一圓八十五錢이라더라

商議聯合會
第三日續

釼本議長開會를宣하고[illegible]東上委員을設할必要를問하야[illegible]

各地金融問題
解決의急務

[illegible]

急設電話工事
龍山부터着手

[illegible]

電信電話速達

本年度遞信局에서計劃한各地電信線及電話線의新設工事[illegible]

私鐵中旬業績

朝鮮合同私鐵十月中旬業績을見하면忠北線外四線의運輸收入合計는三萬八千百五十七圓이며一日一哩平均收入은十九圓八十一錢인바今에各線別收入狀況을見하면左와如하더라

線路名	運輸收入	一日一哩平均收入
忠北線	五、四二九	一八、七二
全南線	六、〇一七	二六、五一
慶東線	七、一四九	一八、六四
黃海線	六、四九七	二〇、八二
咸南線	三、〇六三	一七、三一
合計	三八、二五七	一九、八一

渡東委員決定
朴泳孝古城兩氏

[illegible]朴泳孝古城兩氏가渡東委員으로被選되얏더라

辯護士로檢事採用

[illegible]

日本大學總長決定

日本大學總長男爵松岡康毅氏는[illegible](東京電)

京城電報發着數

[illegible]

咸北土産品評開會

[illegible]

電氣測定令發表

[illegible]

統計主任會議

[illegible]

通信競技會

[illegible]

橫說竪說

[illegible]

消息

▲齋藤總督은釜山水産共進會褒賞式에出席하얏다가二十六日朝歸任
▲李恭燮氏(辯護士) 自平壤昨夜入京

商況
仁川期米

昨日阪地步調는前場初付少高二十一錢에[illegible]

仁川府海岸町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illegible]中買店

商況

[illegible]

外國經濟電報

倫敦銀塊

[illegible]

紐育銀塊

[illegible]

紐育棉花

[illegible]

大阪株式

[illegible]

京株賣買高

[illegible]

短期取引

[illegible]

大阪三品

[illegible]

株式市場
京取底强

[illegible]

大阪株式延取引

[illegible]

綿絲布標準價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京株市場賣買價

[illegible]

各地穀物市場

[illegible]

仁川期米市場
硬果優勢乎

[illegible]

ClibPDF - www.fastio.com

十月二十六日前場 (三圓臺內迫)
今朝天候는阪時に前에各地氣配는不變又는少高로與하얏더라
[illegible] 文閑하게二十一錢을報하얏스나 支合際大阪止價二十三錢을報하 當地는反히四文高한三圓二十五 니硬派의反抗으로二十七錢에也 錢에始한바軟派의防戰으로二十 을止한後氣配는不變又는少高의 五錢에始한바軟派의防戰으로二 便이오今朝阪地步調는有力側의 戰鬪됨을因하니當地硬派의活動 (電話長 七三三一番 電略 マス又는(이))
◀第二節 當은不成에中은四圓六十錢에初任하다 [illegible] 의四圓關門도突破하니四圓으로 九圓關門을突破하고○一錢外지 [illegible] 一口有望은先限은阪地三節은 은阪地四五節共히九圓이라六十 三錢에始하야 一文食弱한二錢을 四錢에在하야小賣氣低價로高値 低價로四五錢에서制限際阪地 九四十錢이라하나七十九錢에止하다 ◀第七節 當은不成에中은四圓
高價 二十三圓九十錢 二十三圓六十錢 二十三圓六十錢
低價 二十三圓九十五錢 二十三圓五十八錢 二十三圓六十七錢
公定價格 同日後場
[illegible]

國境에大衝突

독립단과경관의당시간충돌
경관십여명사수십여부상

근래국경방면의경비가허술한틈을타서혈성단당장김좌진(血誠團長金佐鎭)의긔단장최웅렬(赤旗團長崔雄烈)결사대당리희렬(決死隊長李希烈)등은부하를거나리고압록강(鴨綠江)연안에모히어서 조선내디로 드러오기를꾀한다는풍문이잇는데이달구일에 의원면(渭原面)에나타난일부대는일본경관과 충돌하야오륙시간이나 싸운후에 일본경관십여명을죽이고 수십명을 부상케하고 어데로피하얏는데 그부하의어당김홍희(金弘熙)는군사를거나리고 지금모처에 잇다하며 그들의일부는 임의경성에 들어와서 내외가서로 련락을취한다도 모르겟다하며 리희렬은부하를거나리고 봉텬(奉天)흥경(興京)안동(安東)등디에서 모모계획을하는중이라더라(모처정보)

生道를失한藝術家

自然의暴力에서精神이나서
살길을찻는동경의예술가들
회가들은간판주문까지마터

시절이 태평한때이면 민중(民衆)의 생활이 엇더한지 사회의 실케가 엇더한지 헤아릴틈도업시일홍조흔예술(藝術)에취하야 호화롭고 안일한 생활을 하든 소위예술가들도 파멸의참화를 당한동경에서는 새정신이 나는모양이다 그리하야 문사(文士)들은 근육로동을하고 음악가들은 민중음악(民衆音樂)을 제창하야 엇더한방법으로든지 먹고살도리를 차리지아니하면 아니되게되얏다한다 이와가튼생활을 몃칠이나 계속할는지는 원래가 의문이지만은 먹는것이무엇인지도 모르고 정신업시 지나든그들로하야금 살기위하야 썩은탈을벗고 새로운탈을 쓰게된것은 하늘의우렴에 쌔다름이 잇는모양이다 이제그들의 실케생활을 들어보면 첫재동경 시내의 수만흔활동사진관에 잇든음악대들은 사진관이 모다탓슴으로 엇지할수업시 벌어먹을 도리를위하야 여러가지로협의한 결과 디방순업(地方巡業)을 하기로결뎡되야 임의 관계관령의량해까지 어덧다하며 한편으로 미술가들은 디진으로인하야 뎨면(帝展)이 연긔되고 이과뎐(二科展)과원뎐(院展)은대판경도(大阪京都)등디에서개최하게 되얏슴으로별로히돈생길구멍이 업슴으로 필경에는『거리로나아가자』는소리를치게되야『새랍』에장식화를 그리기도하고 상뎜간판광고지、건축장식등 닥치는대로 주문을맛기로 하얏다하며 또한편으로 일본화의 대가중에는 진재이전에 미리다어쓴화재를 도로내라하야 곤난을당하는 사람이 만흔모양인데 그중에도남화(南畵)의대가소실취운(小室翠雲)씨가튼이는 화재로인하야 칠십여인에게 졸니는등 비참한 일이 한두가지가아니라한다

공구경바람에 五萬餘名

그러나실상은졸々
작일로맛친공진회

부업공진회는 이십오일부터 작이십륙일까지 관람료를 밧지아니하고 일반에게무료로 공개하얏는데 재작일에는공수구경이라는바람에 관람자가오만이백삼명에달하얏고 부업공진회 개회이후처음보는 성황이엇고 작일에도아침부터 일반관람자는 물론 각학교의생도까지 단톄로 다수히입장하엿는데 한편으로 흥행장(興行場)과 음식뎜에는 졸々한바람만 불뿐이오 여러커다 페회의준비를 하노라고 헛가가를뜻는등 사람은만엇스나 실상은쓸々한데다가소소한가을비조차나려서 별로히흥미는 업섯더라

宗一殺害犯

압지면본면으로결뎡

감박대위의 살해에대하야 본월구일에 새범인을발견 취조한결과 삼조당 평정오당은 이등야지 귤종일(伊藤野枝、橘宗一)살해에、압지면 본면(鴨志田、本田)의두상등병은 귤종일의살해에 참섭한일을 인정하엿슴으로 이십사일에 공소를 뎨긔하엿더라(산뎐법무관발표)

恩平面서 늑대捕獲

피해가만튼곳에

시외은평면 불광리(恩平面佛光里)에는작년부터늑대가 출몰이빈번하야 가축의 피해가적지안튼바 최근에도다시 출몰하기 시작하야 재작일에도 늑대머리가백주에그부근으로야지우리는 에달려드는것을 발견하고 즉시 추격하야옹암곡(瓮岩谷)사이에서잡엇는데 무게는륙관오백몸메나되더라

◇한창살올은진장거리◇

新聞通信의押收가 二日間에十四件

일본서발표된사건으로서
조선서압수된것팔십여건

이십오일저녁부터 이십륙일 오전까지사이에 진재에방 조선인참살사건에관하야 경긔도 경찰부에서 압수된신문통신은 십삼종의다수에 달하엿스며 일본안에서 해금된긔사로서 조선서만 압수된것이 이십일일이래로 칠십팔건의 다수에밋쳣더라 압수된 신문통신은여좌

二十三日付夕刊 報知新聞
二十五日付 同
二十四日付 釜山日本電報通信
二十三日付 北國新聞
二十三日付 湖南日報
二十三日付 上海日報
二十一日付 萬朝報
二十日付 奉天新聞
二十五日付 福岡日日新聞
二十三日付 東京日日新聞
二十五日付 大阪每日西部每日
二十四日付 報知新聞
二十三日付 東京朝日新聞
二十三日付 讀賣新聞

南浦署의 大活動

기실은련습

진남포(鎭南浦)경찰서에서는지나간 이십사일오전십시에 서원전부의 비상소집을행하야 오후한시부터 각처에경계망을 느리우고 대활동을 개시하얏슴으로 얼마동안 적막하든 진남포시는긴장한 상태로변하는 동시에 일반시민은 무삼 큰일이나난줄알고 불안중에잇든바 아케그자세한사실을듯건대경찰서원중의 두사람을 ○○○사건의 증대범인으로 변장식이여 모방면에 침입케하고 과학뎍 범죄수색의 방법을 련습케함이라는데 동일오후오시경에 가장범인 두사람을런부 데포하얏는데 긴장하든 형세가 일종의희극으로 변하얏더라(진남포)

出獄하자훔처

다시경찰서에갓다

원적시흥군남면 산본리(始興郡南面山本里)현주인천금곡리일번디데삼십륙호(仁川金谷里의三六)박봉래(朴鳳來)방한봉선(韓鳳善)(二)은 절도긘과 이범자로 수일긘징역을마치고 출옥되얏는데 지난십칠일 오긘열한시경에 부내우각리 칠십칠번디 리긔영(牛角里李基永)방에드려가 귀금속일한개 가격삼백원어치를훔친것이발각되야방금데포조사중이라더라(인천)

怡隆洋行事件 三氏假出獄

합셔은외랑인
작일각々고향으로

안동현이륭양행(安東縣怡隆洋行)에서년전에발생한 모사건의 관계로 삼년징역의언도를 밧고 그동안 평북룡천군에서 복역중이든 평북룡천군합석은(平北龍川郡咸錫殷)뎡주군오학수(定州郡吳學洙)지웅진(池膺晋) 삼씨는 지난이십삼일에 가출옥이되야 지난이십륙일에 상경하얏다가작이십륙일에 각々 고향으로 도라갓다더라

青南會社의 設立은適法

오래간만에판결

함남북청군신포항(咸南北靑郡新浦港)에본뎜을두고 원산부내(元山府內)에지뎜을둔청남주식회사 주주하호구외수십인(靑南株式會社株主河鴻求外數十人)은본년이월 상순에 동회사를상대로 회사설립무효소송(會社設立無効訴訟)을 함흥디방법원에 데긔한이래로 심여회의 구두변론이잇슨후 지난이십륙일에 회사가 승소한다는판결 언도가잇섯다더라(원산)

拳銃과實彈을

감쪽가치훔처간교묘한도적
달어난뒤에야알고경찰활동

가을비가오락가락하는작일새벽세시경에 본뎡경찰서에서는 아상한뎐화를밧자 즉시 사법계형사일동을 비상소집하는 동시에 시내각경찰서에 일변 통지를하면서 밤이새이도록 대활동을개시하얏는대 사건의내용은 비밀에붓치어 자세히알수업스나 탐문한바에 의지하면 새벽두시사십분경에 시내대화뎡(大和町)이뎡목십칠번디 서촌독웅(西村篤雄)의집에 엇더한자두명이들어와서 『모ー셀』식 십년발권총(十連發拳銃)한개와 실탄삼십발과 금시계한개 금안경 한개를 훔쳐가지고 도망하얏는데

그수단이

엇더케 교묘하얏든지 도망한뒤에야알고 즉시 경찰서에 통지를한것인데 범인은 여러가지덤으로보아 보통심상한 도적이아님뿐만아니라 시내각처에 강도사건이 빈々한요사이에 륙혈포를훔쳐간것은 실로 방심치못할일이라하야 소관 본뎡서에서는 필사로 범인수색에 활동중이라더라

隣家에도侵入

역시간뒤에알어

이와동시에 그이웃에잇는 중촌오장(中村伍藏)의집에서도현금 오십팔원과 금시계한개와 기타 두어가지를 감쪽가치 도적을마졋는데 이도역시 도망한뒤에야 알게되엿는바 범인은 역시별한 권총도적인듯하더라

女子의急死

원인은심장마비

경긔도 수원군송산면쌍뎡리(京畿道水原郡松山面双井里)에 사는조이현(趙彝顯)의처 리씨(李氏)는엇더한사정이 잇섯든지사오일전에 서울에와서 시내 종로륙뎡목 십일번디최남선(崔南善)씨집행랑 방문재(方文在)방에와잇다가 재작일오후한시경에 폭사하얏는데 원인은심장마비로판명되얏다더라

主人의돈을

훔처가지고도망

원적을 양산군상북면신긔리(原籍梁山郡上北面新基里)에둔 부산부평뎡(釜山富平町) 리영준(李英俊)상뎜 서긔리종수(李鍾守)는주인의돈이천여원을 가지고 도주하얏는데 목하엄중수색중이더라(부산)

順天海龍面에서도 小作料濫執으로

再調되기까지不納을決議
일곱디주에대한불평으로

전남순텬군서면 상사량면(全南順天郡西面上沙兩面) 에서는소작료를 무리람집한디주의게 대하야는 소작료불랍동맹(不納同盟)을실행하기로 농민의결의가 잇섯다함은 본보에보도한바 어니와 지난이십이일에 해군해룡면(海龍面)에서도농민수백명이 일시에분긔되야 림시대회를 열엇다는데 그내용을드른즉 해면에토디를둔디주김학모(金學模) 금곡일이(金谷一二)서병규(徐丙奎)북천가평(北川嘉平) 김병옥(金秉玉)후등현태랑(後藤玄太郎)박창서(朴彰緖) 일곱사람은불량한사음(舍音)을사용하야 작년보다 소작료를 무리람집함으로 궁경에있는 소작농민들은 더욱히 사라날길이업다하야 이와가치 분긔됨이라하며 의댱허석(許錫)씨의 사회하에 결의된사항은 다음과갓다더라

決議事項
一、不法濫執한小作料는再調定을要求할事
一、小作料는全收穫의四割以內로再調定이되기까지는小作料는納付치아니하기로할事

妙洞敎會는平穩

아무일업시되엿다

시내봉익동(鳳翼洞)에잇는 묘동교회(妙洞敎會)에서 음악회사건으로 일부청년교도들과 그교회 최대진(崔大鎭)목사 사이에 갈등이생겻다함은 사오일젼에 보도한바어니와 작일에이르러 그교회삼각청년회(三角靑年會)에서사실이업다는 취소신청이 들어왓더라

第四回全朝鮮蹴球大會

競技期日 十一月廿一日、廿二日、廿三日
競技場所 京城桂洞徽文運動場
參加團體 青年團、中學團、小學團
【靑年團은三個月以上、中學團及小學團은二個月以上該團에在籍한者를當該學校長又는會長의證明이有함을要함】
參加會費 青年團十圓中學團五圓小學團無料
申請期限 十一月十八日까지體育會에到着하도록
抽籤日時 十一月十九日午後四時體育會本部에서
主催 朝鮮體育會 後援 東亞日報社

桂貞植君의 告別音樂

오늘밤청년회관

청년음악가로 독일로 류학가게된『싸이오린』에련재를가진 계정식(桂貞植)군의송별연주회는 임의 지난십구일밤에 경성공회당에서 대성황으로개최 되엿거니와 군은명이십팔일에 경성을떠나 멀리독일로향하겟슴으로 일반동호자간에서는 그의 묘기를 한번맛보고자최후의연주회를다시금이십칠일하오여덜시에종로긔독교청년회관에서개최하되김영환(金永煥)윤심덕(尹心德)케씨의찬조출연도잇스며매우드를만할터이라는데 입장료는 일원오십전、일원、오십전이라더라

崇義校生의盟休와 殘忍한羅氏의行爲

긔숙사학생은긔갈을당해

평양숭의녀학교 (平壤崇義女學校)학생들의 동맹휴학에대한사실은 루차보도한바와가치 백여명학생의 불평이 긔숙사 감독선생인라진경(羅眞敬)녀사의게 집중되얏스며 일반사회의비난도 라진경한사람의게 몰니게 되엿다 소위라진경의잘못이란것은 더말할것업시 다시학생들이 증명할바이지만은 라진경녀사극도에까지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을보아 사실는 차라리다수한학생을 희생에맛치게할지언정 자긔한사람만은 영々그학교를직히며 종시떠나지아니할 결심을하는 모양이며 동학교에관계자인 미국인측에서도 최후까지 완명한수단을 고집하야 결국학교문을 다치고말형편이 잇슴으로 평양야소교장로회도당회(長老會都堂會)에서는수일전부터조만식(曺晩植)리덕환(李德煥)외량씨를대표로뎡하야 백방으로 권유하고중재코저하얏스나 미국인으로 조직된동교리사회(理事會)당국자와 미국인선교사마포삼열(馬布三悅)씨는라진경녀사의잘못은

별문데로

하고 학생측에서 라진경녀사를 원망하고배척하는것만을 잘못이라고 주장하는중이며 이십오일오후에 이르러는 긔숙학생에게 고통을주어자복을밧을수단으로리진경녀사로하야금모하다수한학생이류숙하는 긔숙사의 뎐등불을쓰고 다시수도(水道)를막으며부엌문을봉쇄한후 불도 써이지못하고 조석도 지어먹지 못하게하얏슴으로 다수한어린학생은 암흑한 방속에서 쓸아린가삼을 태우고 찬눈물을흘니며 끼니를 굶하고 학교들에모히여 긴々밤을 지내게되엿다더라 (평양)

金氏는無罪判明

곳방면되여나왓다

시내입정뎡(笠井町)일백이십구번디에사는김뎡규(金貞圭)라는 녀자가 지난십이일에 자긔집에 머물러잇든 황해도연백군 김래봉(金泰鳳)이란사람의돈사백원을훔쳐내엿다는혐의로 본뎡서에인치되야 취조를밧는다함은 이미본보에 보도하얏거니와 그후자세한 내용을 조사한즉김래봉의집에 와서숨박하든바윤래호가수원군(水原郡)김영옥(金永鎬)의서대를빼어가지고김래봉의가방에서 돈을훔쳐낸후 어데로도망한사실이김영옥의자백으로인하야판명된결과 김뎡규는 지난이십사일에 무죄방면 되얏다더라

普校生徒가架橋

面當局의無責任으로
양평구룡문지뎨두면사이에

양평군룡문면 지뎨면(龍門面砥堤面)두면경계에잇는다리는 려주가도로통하는 교통이 복잡한 도로일뿐 아니라 룡문면광탄리(廣灘里)에잇는지평공립보통학교(砥平公立普通學校)에통학하는지뎨면학생이 수십명이나 되는과겨울이되면 어린 아해들이 찬물에 발섭하야 어름물드되고 단이는모양이 참아 볼수업는형편인즉 실로긴급한문뎨이나 관계되는두면에서는

서로승강

을 하기시작하야 과거수년동안을 그대로두고 보다가 금년봄에야 겨우군령의 간섭으로 다리를노앗스나 불과 수삭만에 올여름 폭우중에다시 떠나려가고말엇슴으로그뒤에다시 수축을 하게되엿스나 룡문면에서는 면내두동리에서 무슨발이생기어서 그중의 두어동리는 자긔동리에서마른두역을수축하지안코 내버려두엇섯다 그런한까닭으로 그교량에는 사람이 통행하지못할뿐아니라 밧가튼데에는 도리여 통행하기 위험하게되엿섯다 그래서면민중에는 여러번 면소에대하야

교섭까지

한일이 잇스나 종시 수리할긔색이업는중 임의는 검수치워가서 보통학교생도들의 통행이 극히위험하게됨으로 이를딱한 지뎨면 생도들은 하로밧비 가교라도 가설하여야 고생을 들하겟다생각하고 이십여명의생도와 인솔한 선생한명은 지난십일일에 그곳에나가서 종일로력한결과 겨우 가교를가설하고 돌어간일외지 잇슴으로 동디의주민들은 면소와 군텽의 무책임함을 비난한다더라(양평)

放免된放火犯 又復數處에放火

목하평양경찰서에잡혀잇다

평양부경케리(平壤府鏡齊里)양태진(楊泰鎭)(二○)은대정구년에 방화범(放火犯)으로 평양형무소에서 삼년간의징역을 맛치고 지난팔월에 방면하얏는데 그후 동인은 엇던심사가 생기엿든지 사면으로단이며 남의집에 불노키를시작하야 본월이십이일 오후네시경 아청리(衙廳里)팔십구번디 한광수(韓匡秀)의집과 이십삼일 남뎡(南町)삼십오번디 일본인 인환방길(印丸房吉)의집에 불을노아 약간한손해를 내이게하얏다는 사실로 지난이십사일 평양경찰서에 데포되야 취조를 밧는중이라더라 (평양)

德川郡에 時局標榜强盜

덕천경찰서의대활동

평남덕천경찰서(平南德川警察署)에서는 지난이십삼일부터돌연활동을 개시하야 엇던범인을 수색하기에 무척 애를쓰는모양이라는데 아즉상세한내용은 알수업스나 모처의 탐지한바에의하면 동이십일일밤 동군모처에는 수명의강도단(强盜團)이 침입하야 시국을표방하고 군자금(軍資金)을 강청한사실이 잇는관계인듯하다더라 (평양)

水害救濟金

본사에드러온것

一金三圓也安城郡鞍陽面貝村里聖公會信徒一同▲金七圓也通川郡佳新里南監理耶蘇敎會信徒一同▲金一圓六十五錢也江華郡府內面私立雜頭學校男女學生一同▲金五圓也慶北禮安李成祚▲金五圓也慶北禮安培善醫院▲金二圓也慶北禮安權相直▲金各一圓也慶北禮安尹岐鶴、李中圭、浦洞李成鎬▲金五十錢也申德

東京罹災同胞 同情金

金五圓也市內三淸洞三、高麗佛敎中央大會▲金四十五圓也延白郡柳谷面

今日의秋期種痘

반듯이우두를 느이야 할사람이 너치아니하면 과료(科料)나 구류(拘留)에처한다더라
▲場所는 龍山小學校 ▲日時는 十一月二日 ▲區域은 漢江通全部、二村洞一圓

甘粕事件은 五人共謀로

미일조에공판

감박사건에대하야 특군법회의공판한바에의하면 이등야지와 귤종일의살해에대하야는감박、삼남지뎐본뎐 평정(?)(川、森、北)의다섯사람이 공동하야 각각분담살해한것이 되엿스며 뎐편시 다섯사람은살인의살인뎡범으로 인뎡되며 전부긔소된것이며 감박에게 대하야는 최초에 세사람의살해죄로 고소된것임으로 이번에 새로수속할 필요는업섯다 그리고공판은 형편에의하야 삼일혹오륙일경에 개뎡될모양이더라(동경뎐보)

水害救濟金으로

중앙교회에들어온돈

수해구제(水害救濟)에쓰라고시내중앙교회에 아래와가치 동정금이드러왓더라
大阪府[illegible] 一圓、阿部德一圓、李玩植五圓

신랑신부

금이십칠일오후일시경에 법화천분학교(法新門學校)에재학하는박용진(朴容鎭)군과 양화진녀학교(楊花女學校)를졸업한 최은덕(崔恩德)양과의결혼식을 시내[illegible]에서 거행한다는데 일반지구는만히 참여하여주기를바란다고

仁川에染病發生

인천부화뎡일뎡목(仁川府花町一丁目)사십번디송기방(松崎方) 도촌마길(島村松吉)(?)은지난십일부터 발병되엿는데 동십오일 인천병원(仁川病院)에서 진단한결과 장질부사(腸窒扶斯)로판명되야 즉시 피병원(避病院)에 격리수용하엿는바 그뒤로는 별로만연되는 징조는업다더라(인천)

牛車에치어重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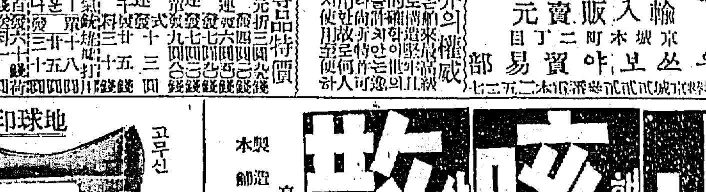
지난이십사일오후네시경평양부황금뎡(平壤府黃金町)류경의원(柳京醫院)압헤서는우차에 아해가 치이어 중상을당하엿다는데 이아해는 그긔황금뎡 팔번디정원록(金元錄)의 아들 긔천(?)(二)이라하며 생명에는관계가업슬듯하다더라(평양)

◇……모 임……◇

▲서대문외 독립레배당에서는 오는이십구일 하오칠시부터 좌긔량씨의 특별대강연회 개최
講師 李明稙 李命燮

◇휴지통

▲요사이경무당국의 신경과민이라할는지 신문지공포병이라할는지 이상한병은그정세가매우심한모양이다 ▲별항에 보도한바와가치 이십오일오후부터 이십륙일 오전까지 이틀사이에만 압수한신문잡지가 십사종이요 소위진재디방 조선인사건으로하여서 압수한건수는 실로팔십칠건의다수인데 ▲그러한것은 일본안에서는 다흥흥하게사법성이나 경시령에서 발표한것을 조선안에서만 압수를하는것이다 아모쌔알어도다알어지고 말일을 조선사람뿐아니라 세계의인류가 다 알고야말일을억지로압수만하면 되는지 ▲경무당국의정신업시날뛰는것은진재당시의일본자경단과조금도달음것이업다 그리고도 자경단이 엇더타고 말할자격이 잇슬가 ▲만일 자경단의한일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그는별문데이지만은! 더욱이일간에는 소위유언의 출쳐란는 것에대하야 무슨중대한문데가 생긴모양인데 그러키로 덤허노코놀너만 누면 셈이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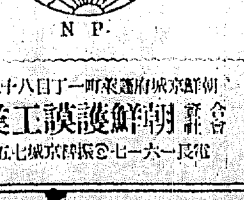
許可不用
純新式連發空氣銃 가스미網
斯界의權威 本銃은輸入品으로從來의物과는的確히比較치안코堅牢하고精巧함을保證하며何人이든지簡便히使用할수잇도다
輸入販賣元 京城本町二丁目 우쓰보야貿易部 振替京城二六五二三
一等品特價
닛게루元折 三圓卅錢
三百發連發 四圓三十錢
五百發連發 六圓五十錢
千發連發 七圓廿五錢
닛게루三百連發 七圓七十錢
五十連發式 九圓
[illegible]
高級空氣銃 [illegible]
미리다 [illegible]
구라나온 [illegible]
다이후 [illegible]
彈丸 一九五百發 荷造料六十錢
長三間巾六尺 三圓五○錢
長五間巾六尺 五圓五○錢
送料二十五錢

李王職御用
太油 水油 北油 一 耕植物 杜油
漢城製油所 京城府禮智洞八八 電話光化門一一五一

家庭副業
特許三圓 [illegible]
大阪市 [illegible] 友榮

祛痰止咳散
기침으로고생하시는人士여 이藥저藥할것업시 꼭!此祛痰止咳散을服用하시오
本劑가世上에發明된지十餘年에 [illegible]
主治効能
男女老幼咳嗽、喘息、百日咳 [illegible]
定價
一週日分壹圓武三週分
以上注文에는郵稅本堂에서負擔함
本舖製造 京城太平通二丁目 慈善堂藥房 主 金 [illegible] 振替京城一九○七番

地球印 고무신

朝鮮護謨工業所

各種·護謨靴 專門製造販賣
合資會社 朝鮮護謨工業所 朝鮮京城府東大門外一丁目八十八番地 振替京城七七五一

謹告
今回未曾有의大强震에際하야는混亂中早速히御慰問하야주심은깁히感謝하나이다 殆히全市에亘한大火災씨문에弊商會는本舖는類燒되엿스나工場은木造建物의一部가倒壞하얏사오나本舖工場과人命에는別로異狀이無하고金庫及帳簿도安全하오니念慮치마시옵소서 此際安全花王石鹸도當分間市場에品少할것이나 復을急速히하야平素의愛顧에報答코저하오니倍舊의愛護를願하옵나이다
大正十二年九月
東京市馬喰町二丁目 合資會社 長瀨商會
花王石鹸本舖
東京府下吾嬬町小村井 長瀨工場
花王石鹸製造所
追而當分間本舖假事務所는東京市本鄕區駒込富士前町五五長瀨電話小石川八八五方에設置○工場事務는從前과如히工場에서取扱하옵나이다

泣血鳥(읍혈조) 【139】

李熙喆作 盧壽鉉畫

피라고하면 선희가 상금리서 방에게 란다를 발할때에도 코피는흘녓다 그러나 다가치 사람에게 심상한생각을주는 그피로써 입으로 그것을 토한다는것처럼 더신듯한 감각을주는것이 어듸잇스랴 실로행랑어멈의 놀낸것도 우연한일은아니라 할것이다

그러나 선희는 여전히 고롱업는얼골로 눈을감고 누어잇슬뿐이다 그러코 코와입에 붉은피가 낭자한것을 보아서는 꼭죽은사람이나 다름업시 보인다 그러나 선희는 죽은것이아니다 의식을 일흔것도 아니다 또한 한창더 나아가 말하면 리서방에게나 행랑어멈에게 구박을 바든것도 아니엿다 아모리 리서방을 조격하려하다가 그일이 폭로되엿다할지라도 그만한 악계를 생각한 선희 인이상 절단코 어리석은 리서방에게 매를맛거나 머리채를 잡히우거나 할것은 아니엿다 더구나 행랑어멈가튼 것은 발도 아니할것이다

라 탈한커디에서 아름답든 지나간생활의 슬픈추억(追憶)과 또는 적지안는 량심의 가책을 밧

는것처럼사람으로 하여금 온명의발 앞에 헌업시 굴복을 하게하는것은 엇이엇든가――선희는 할수업다 하엿다

자기의 한일을 생각하야 양하게된 그망은 다시 살기를 원치아니하엿다『하나님이여 날을죽여줍소서』하는것이다

그러면선희는 리서방이 머리채를잡아 나물때에도 가만히 잇섯다죽은개가치 밧그로 끌니여나갈때에도 가만히 잇섯다 코피가 흘너도 씻츠려고아니하엿다 그보다 어먼에게까지 업수히녀김을밧든나마에 종문리에 몸을떠러드려 목이상하야 입으로 피를토하게되엿서도 선희는 『응!』소리한마듸 외에는 역시 가만히잇섯다

――행랑어멈이 보고잇든 동안 선희의 입에서는 첨々더 피가만히 흘너나오기 시작하엿다 마츰 선희가 모으로 누어잇섯기 째문에 그피가 목구멍에 고여 호흡에 곤란할것은 업섯스나 어느덧 마루에까지 흘너나리기도 시작하엿다 어멈은 놀낸가운데두서웟다 선희가 아모 고통하는빗이 업시 곱게 눈을감고 누어잇는것이 죽엇거나 그럿치 아니하면 죽어가는것이라고 생각한 까닭이다 그러고 자기가 선희를 종문리에 떠려트려 그로부터 선희의 목에서 피가나온것이라고 생각하면 드커히 한시간이라도 더 어 그 리밝을

면주고 이슬수 업는것이다

『내가 이집에 더잇다면 리서방한테 무슨상이라도 밧게될나구 공연히 어름을거리다가 경찰서에나 잡혀가게되지 나도도망하는게 데일이야』

삼십분이란 시간도 못지나서 행랑어멈은 잇는옷가지와 또는 약간 선희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어듸로 나가버렷다

이욱고 선희는 눈을 써보앗다 무덕나도 고요하다 그러나 오래감고잇든 눈이 휘황한 여름의해빗을 감작히볼수도 업는일인즉 몃번 눈을써버어리다가는 감고〃〃 이러케해서 겨우 눈을 또게되엿다

눈을 쓰자 선희는 각가스로몸을 이르켯다 문득 손에 피가묻든것을보앗기에 비로소 입에서부어시 나오는줄알고 배아타 보나 세볼간피다 그러나 선희는조곰도 놀내지안엇다 여시 고통이업는 화평스러운얼골로 손수건을 내여 손과입과코와 마루의피를 씻는다

그다음 선희는 무엇을하엿든가――그로부터 오분간이란시간도 못지나서 선희는 목을매엿다 마 청마루의 한복판을 지난 대들보에 가―다란 빨내ㅅ줄을 세겹이나 겹처서걸고 선희는ㅅ〃로 목을 매여단것이다――목매자 선희의얼골은 금시에 별개진다 그리고 목으로부터 이마와우에 혈관이 불특〃〃이러서고 다시 얼골빗은 첨々검어가기시작할때에 선희는 몃번 몸부림을며 이상한소리를 내엿다

마츰그때에 대문밧게서『이리오나라』소리가 들녓다 두번들니고 세번재들녓다 그러나 안에서 아모대답이 업섯든 까닭인지 그러고나 어주문에 나타나는 사람 그는 김창호엿다 선희를 보자 달녀드러『선희씨 아 게웬일이야요』하며 일생에 처음큰 변을 맛난 황망한 태도로 한손으로는 선희의 몸을추어들고 한손으로는 빨내ㅅ줄을 봇잡앗다 이때에도 선희는 아즉숨이 넘어가지 아니한는지 엣번목에서 글―〃하는 소리 드를니고 몸도 흔드는듯하엿다 그러나 그얼골은 이미 새카마케 죽어버린것이다

北鮮輪車大會 嚴福童君의 敗北

元山輪友俱樂部의 主催로 北鮮自轉車競走大會를 開한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同大會는 豫定대로 去廿一日午前十時부터 元山停車場前廣場에 開催되얏는데 觀衆은 人山人海를成하야 雜沓을 極하얏고 參加選手는 元山附近과 京城及黃海道等地에서도 多數參加하얏스며 斯界에 名聲이 高한 嚴福童君도 參加하얏다 그러하야 一般觀衆은 各選手들外지도 優勝은 嚴君에게 歸하리라 觀測하얏다 그러나 咸興의 新進選手 黃福章君은 過般 咸興大會에서 嚴君과 雌雄을 決하야 嚴君이 敗北한터인데 今般에도 各選手의 成績을 報告하면 左와如하더라

◇第三流乙組(二十周)
一着 水江憲一(元山) 二着 黃福章(同) 三着 成寬玉(同)

◇同 上甲組(二十周)
一着 竹本武夫(同) 二着 金仁孫(同) 三着 黃世雲(同)

◇臨時各地聯合組(十周)
一着 李景弘(元山) 二着 五十島榮吉(京城) 三着 嚴福童(同)

◇第二流(四十周)
一着 駒井政市(元山) 二着 吳昌錫(同) 三着 金田奎一郞(同)

◇第一流(六十周)
一着 柳元國(元山) 二着 李景弘(同) 三着 金應陸(同)

◇各地聯合乙組(五十周)
一着 李國守(元山) 二着 武藤小太郎(同) 三着 韓寅衡(咸興)

◇同 上甲組(六十周)
一着 吳聖萬(咸興) 二着 李景弘(元山) 三着 嚴福童(京城)

咸南大豆收穫

咸鏡南道의 本年大豆收穫豫想高에 對하야 元山商業會議所의 調査한바에 依하면 合計三十八萬五千五百十六石인대 此를 郡別로 示하면 如左하다더라

元山	不良	一六石
咸興	良好	三〇、〇〇〇
定平	同	四〇、六二〇
永興	同	二九、五七五
高原	普通	二〇、五一六
文川	良好	三九、〇七六
德源	稍不良	一七、三三二
洪原	同	二六、〇六六
北靑	同	五一、八五五
利原	同	一七、三五一
端川	良好	四四、七〇七
新興	同	二二、二六一
長津	同	四、八九八
豐山	同	七、五三七
三水	同	九、八〇六
甲山	普通	一一、二二七
合計		三八五、五一六

(元山)

元山勞働總會

元山勞働會에서는 去二十一日午後七時부터 府內山祭洞天道敎堂에서 秋季定期總會를 開하고 左記事項을 決議하얏더라

一、規則及細則修正의件
一、豫算追加更定의件
一、檢査員選定의件

今番에 當選된 檢査員은 如左
姜熙國 李在燮 金元吉 金均相 (元山)

寧邊熟素好績

富地張瀅龍 張東瀅 康明奎 朴明化外七十餘人의 合同으로 昨年三月에 設立된 織造組合은 設立以來로 寧邊郡唯一의 産物인 明紬를 改良하며 乘하야 熟素를 織造하야 外來品을 防禦코져 努力한 結果 良好한 成績을 得하얏슴은 日前 今般 事情에 依하야 事業을 天道敎靑年會 實業部에 附케하고 三百坪 敷地에 工場을 新築하고 一部에는 木工部를 設하야 諸般機具를 製造케하고 一部에는 實習生二十餘名을 募集하야 工場總務 朴基陽 明基祚 兩氏의 敎授下에 多數한 機業者를 養成하야 不少한 熟素를 生産中인대 今秋에는 一層業務를 擴張하야 諸般設備를 完成하고 多數의 熟素를 産出한다더라(寧邊)

咸南醫療機關

咸南道內醫療機關에 對한 十一年度中의 統計를 보면 醫師六十人 醫生七百七十九人 限地開業醫三人 齒科醫五人 藥劑師六人 賣藥業者四十人 請賣者千二百八十九人 産婆二十三人 看護婦二十一人 入齒營業者十三人 藥種商千二十五人 其他七十二人이더라(咸興)

咸南牛의聲價 副共이證明

今番共進會에 咸南咸興의 牡牛와 永興의 牝牛가 名譽賞及一等에 入選되야 聲價를 揚하얏는데 元來咸南牛는 前부터 各道에서 稱牛注文이 踏至하야 一々需應에 困難을 感하얏고 咸南牛의 聲價는 日本에서도 遊振하야 年々移出이 激增하는데 移出地는 敦賀를 經由하야 大阪東京에 至하는것과 下關을 經由하야 尾道、廣島、福岡方面에 至하는것인대 十一年度에는 二千四十三頭(價格十八萬七千五百五十四圓)가 移出되얏더라(咸興)

光州市民運動 猩紅熱로延期

本社光州支局主催 光州市民陸上大運動會는 今二十七日擧行할豫定이엇는바 同地方의 猩紅熱猖獗로 因하야 不得已 會期를 來三十一日로 延期하얏더라(光州)

罹災救金決算

日本大震災當時 全州에 在籍者로서 東京在留人二十餘名의 生死調査와 救濟키爲하야 救助員二名을 派送키로 全州靑年會와 歸省中인 東京留學生側에서 協力募集한 義捐金이 五百餘圓에 達하얏스나 當局의 渡日禁止로 因하야 其目的을 達치못하고 其後全州人大部分은 無事歸來하얏슴으로 今月二十二日夜八時 全州靑年會館에 同會幹部와 東京留學生二十餘人이 會合하야 救濟金處分에 對하야 協議한結果 東京震災罹災全州人救濟의 名稱은 此로써 終結하고 此後에도 如何한 變故가 有할을 難測인즉 義捐諸氏의 同意를 得하야 全州人在外苦學生救濟基金으로 保留하기로 決議하얏는대 其決算은 如左하더라

收入
一、金四百八十九圓 義捐金總額(五百四十四圓內賃收額)

支出
一、金九圓十錢 募集費
一、金八十圓 在東京柳仁錫外七人處送付金
一、七圓十錢 全州人安否調査費
一、金五圓 報告書及爲替金送料
一、金五圓 南原任實人罹災歸鄕時旅費補助
計百二圓二十錢
差引殘額 三百八十七圓八十錢也 (全州)

地方改良宣傳巡寫

价川郡廳에서는 地方改良과 副業奬勵의 目的으로 平南道聯社會課 活動寫眞隊를 左記日割로 巡廻映寫하는 同時에 此에 關한 講演도 行하는中인바 去二十二日은 午後七時부터 當地公立普通學校運動場에서 分課講演及活動寫眞을 映寫하야 盛況을 呈하얏스며 映寫中에는 過般平壤水災實寫도 有하야 一般觀衆에게 多大한 感動을 與하얏더라

十月二十二日 价川面 二十三日 內東面 二十四日 中西面 二十五日 中南面 二十七日 外東面 (价川)

公州金組臨時總會

公州市街地金融組合에서는 去八月十八日 開催한 總會에서 決定한 組合長 理事는 當局의 選任認可를 經하얏스나 決議事項中 定款變更의件及役員選任의件中에 監査及評議員全部選擧는 法令定款에 違反되다 認하야 金融組合定款第六十七條에 依하야 當局은 其決議를 取消하얏슴으로 更히 來十一月三日午後一時부터 本町錦江館에서 臨時總會를 開催하고 左記事項을 附議한다더라

一、監査一名增員에 關한 定款變更의件
一、監査及評議員選任의件 (公州)

朝鮮基督敎會發展

朝鮮基督敎가 呱々의 聲을 發한지는 벌서 六年前이다 該敎會를 創立한 牧師 金庄鎬氏는 爾來 物質上苦痛과 四圍의 猛烈한 迫害에도 不屈하고 奮鬪努力한 結果 旣히 設立한 敎會가 二十餘處에 達하는터인데 去十三日에 鳳山郡西鍾面西洞里에서 同敎의 主旨를 贊成하야 八十餘人이 入敎하고 當晚에 禮拜堂을 設備하기로 한바 此에 對하야 出捐한 人士의 氏名은 如左하더라

朴宗善 朴宗叔 金學洙 各十圓 金季德 安女史 六圓 李炳柱 金樂濟 各五圓 趙昇燮 三圓 金在寬 二圓 金守鎬 金益成 金鳳徵 洪昌洙 林淸化 金永化 葛文洙 金斗錫 吳鳳濟 李明煥 金濟永 金庄鎬 金信澤 各一圓 (圓以下는 略함) (沙里院)

安州秋季淸潔日割

平南安州市內秋季淸潔日割은 如左하더라

十月三十日 建仁里 栗山里
十一月一日 淸橋里 南川里
十一月三日 龍峴里 信義里
十一月五日 北門里 七星里 (安州)

池昌奎氏의厚意

平壤府驛里醫生 池昌奎氏는 苦學生의 困境을 同情하야 住宅과 器具를 無料借與하며 오는 便宜를 圖하는中임으로 一般은 氏의 厚意를 感賀하야 마지 안는다더라(平壤)

靑北秋期聯合運動

咸南北靑郡北靑敎育協會의 主催로 來三十日과 三十一日兩日間 秋期大運動會를 開催할 豫定이라는대 場所는 德城面竹田里九龍岸下便으로 定하얏다하며 參加團體는 德城里泥谷三面內의 各學校에 限한다더라(北靑)

肥料品評施賞式

旣報와 如히 价川郡廳에서는 肥料品評會를 開催하고 審査를 終了한바 來二十九日(陰九月二十日) 軍隅里市日을 利用하야 外四面事務所에서 當選者二十八人에게 施賞式을 擧行한다더라(价川)

公州陸地棉收穫高

公州郡本年度陸地棉栽培狀況은 作付面積四百十八町步로 收穫高는 三十四萬二千斤에 達하며 反當收穫高는 八十一斤八分의 比例인바 生育이 良好하며 二十日부터 共同販賣를 開始하얏다더라(公州)

釜山府協議選擧近

釜山府에서는 本月廿一日부터 府協議員有權者名簿縱覽을 開始하얏는데 此와 伴하야 一般의 人氣는 漸次白熱化하는 傾向인바 今年에는 日本人側에는 新有權者가 多數出馬할 模樣이라하며 朝鮮人側의 有權者數는 百二十七人이라더라(釜山)

新義州協議員選擧

新義州府에서는 府協議員選擧에 對하야 有權者를 地方費以外 國稅十圓을 納付하는 者로써 하얏는데 有權者總數는 六十五人이라하며 府協議員選擧는 來十一月二十日에 實行할터이라는바 協議員數는 十人이라더라(新義州)

北下共同墓靈魂祭

全南長城郡北下面民風改善硏究會北下分會主催로 來二十八日을 期하야 同面共同墓地에 埋葬된 死者를 爲하야 白羊寺에서 靈魂祭式을 擧行하기로 한바 此에 對하야 面民及其他有志의 義金이 有한바 如左하더라

金一百十九圓 面民一同 ▲金十圓 光州朴圭 ▲金一圓 崔相煥 (長城)

靑陽少年庭球大會

忠南靑陽郡靑陽少年體育會主催로 去廿一日 庭球大會를 靑陽公普校內에서 開催하얏는대 參加團은 廣川少年體育團四組이엇스며 三回戰으로 결定한 結果 優勝은 靑陽少年體育會에 歸하얏다하며 午後五時散會하얏다더라(靑陽)

崇中同窓紀念音樂

平壤崇實中學同窓會에서는 去二十三日午後八時 門外會堂에서 同會의 創立二週年紀念으로 音樂會를 開催하얏는대 聽衆은 千餘에 達하얏스며 順序는 如左하더라

第一部
一、讚頌 安益泰
一、祈禱 柳世明
一、趣旨說明 司會者
一、紀念辭 李東輝
一、經過事項報告 鄭應奎
一、校歌 學生全部
一、祝辭 馬布校長

第二部
一、奏樂 崇大音樂
一、二部合唱 金東瑞 白正熙
一、피아노合奏 朴觀浩 玄明鉉
一、四部合唱 崇實讚頌隊
一、獨唱 車在明
一、만도린合奏 安益泰 大石環
一、바이올린合奏 崔信明 朴永福
一、四人合唱 金盤石 金仁福
一、바이올린獨奏 金東中
一、獨唱 吳소女史
一、奏樂 崇人樂隊 (平壤)

安城成歡間自働車

京畿道安城邑과 京釜線成歡驛間에 自働車運轉은 多年同地人士의 宿望中이든바 今般道路修築이 竣功되얏슴으로 安城邑內共成自働車 金鍾鳴氏가 當局의 許可를 得하야 十月二十二日부터 自働車運轉을 開通하얏는데 每日定期運轉時間及賃金은 左와如한바 從來安城邑에서 京釜線에 聯絡하는 唯一한 通路인 安城平澤間에 比하면 道路도 完全할뿐아니라 平澤驛에서 停留하지 안는 特急列車가 成歡驛에서는 停留함으로 安城成歡間自働車開通은 一般便利하게 되얏다더라

◇自働車賃金
安城成歡間 一圓十錢
安城眞村間 五十錢
眞村成歡間 六十錢

◇自働車發着時間
午前八時 安城發 同九時 成歡着
午後三時 安城發 同四時 成歡着
午前十二時 成歡發 午後一時 安城着
午後五時半 成歡發 同六時半 安城着 (安城)

豐基少年音樂大會

慶北豐基少年勉勵會에서는 去廿二日午後八時에 音樂大會를 同敎會禮拜堂에 開催하고 順序에 依하야 進行하얏는데 男女聽衆은 五百餘名에 達하는 盛況을 呈하얏더라(豐基)

廉金兩氏의敎育熱

端川郡汝海津을 中心으로 한 附近五個里의 唯一한 敎育機關인 東興學校는 元來有志 廉致鉉 金光洙 兩氏의 努力으로 設立되야 爾來三年間을 困難히 維持하야 오든바 近日激增하는 向學熱에 伴하야 現在의 校舍만으로는 到底히 社會要求의 萬一도 應하기 不能함을 兩氏는 깁히 感하고 有志諸氏와 協議한 結果 校舍를 增築하기로 目下努力中인바 一般은 兩氏의 誠意에 對하는 形勢인바 近々實現되리라더라(端川)

大田地方棉花賣況

大田農會에서는 數日前부터 棉花共同販賣를 開始하얏는데 新灘津四千斤、東面二千二百斤의 出荷가 잇섯고 大田에서는 二十五日市日부터 出荷한바 價格은 一等棉二十三錢七厘로서 昨年最高價格과 大差가 無하며 東面에서는 二十四日市日에 約一萬斤의 出荷가 되얏더라(大田)

寧邊金組評議員會

寧邊金融組合에서는 去二十日 評議員會를 同組合事務室에 開催하고 組合長 車國轍氏의 司會로 新加入組合員에 關한件 組合員信用程度의 決定 貸附金利子引下의件 新築事務所落成後現在事務室及附屬建物撤下에 關한件 金宅敗地二十六坪買入件等을 討議決定하얏더라(寧邊)

光州市民陸上運動

時日 十月三十一日
場所 慈惠醫院後코-트
主催 東亞日報光州支局
後援 光州靑年會 光州基督靑年會 光州勞働共濟會 光州民大地方部 光州女子靑年會

安州水災救金分配

平南安州에서는 過般水災罹災民을 爲하야 募集된 義捐金一千五百九十三圓六錢과 驛屯土藁草採取收益金一千二十五圓二十五錢은 旣報와 如히 方今分配하는바 救金錢額二千七百餘圓으로 特히 救濟하고 또 生活을 維持키 不能한 者를 救濟하기로 하얏다는데 救濟를 受할 者는 左記納稅標準以下에 依하야 行한다더라

面別	等級	納稅額
安州面	十七等	一圓九六錢
東面	十七等	一圓三〇錢
立石面	十六等	六六錢
燕湖面	十二等	一圓三六錢
新安州面	十六等	一圓四十二錢

救濟金을 受할 者의 數

面別	家屋破壞	農作被害	死者	傷者
安州面	五四	一	一	一
東面	一二	一	一	一
立石面	一二	一	一	一
燕湖面	四八	一〇	三三	二
新安州面	一西	四	一	一
合計	八二〇	四四	二一	二

分配金額	郡義捐金	靑草代金
家屋破壞	一圓八〇	一圓一五
死者	三圓六〇	三圓六〇
傷者	三圓二七	一圓八七

(安州)

昌原內西公普設立

昌原郡內西面에는 子弟의 敎育機關이 업고 馬山까지 通學하는 兒童이 多하야 距離가 稍遠하야 不便을 感케됨으로 面民이 合하야 學校를 設立키로 하고 敷地에 公普校를 設立케되야 數月前부터 同面과 尺里에 二十五坪의 校舍新築工事에 着手하얏든바 今般竣工되얏슴으로 去二十五日 落成式을 擧行하게되얏는데 生徒는 一二學年을 合하야 百二十餘名을 募集하고 十一月一日부터 開校할 豫定이라더라(馬山)

保誠樂隊演奏會

市內培誠學校에서는 保誠樂隊를 組織하고 北隆學校를 完全하기爲하야 去二十二日下午七時부터 廣石洞長老敎禮拜堂에서 東西洋音樂演奏會를 開催하얏는데 入場者는 二百餘名에 達하야 盛況을 呈하얏스며 今後繼續하야 二個月이나 或은三個月에 一次式 演奏會를 開催할터이라는데 當日同情人士는 左와如하엿더라

李永徽 劉成業 女史李潤鉉 各二十圓 李鍾晄 十二圓 張弘吉 十一圓 金宗俊 李順榮 李好鉉 [illegible] 車淵細 徐昌均 金永濟 [illegible] 金知鉉 金升俊 張京模 梁貞潔 徐 [illegible] 朴熙萬 [illegible] (?)

各地靑年團體

[illegible]

晉州女靑定期總會

晉州女子靑年會에서는 去廿二日下午五時에 晉州敎會禮拜堂內에서 定期總會를 開하고 [illegible] 五人을 選擧하얏더라 [illegible]

北靑々年定期總會

咸南北靑々年會에서는 去二十一日午後二時부터 同會館에서 定期總會를 開하고 臨時議長 李 [illegible] 司會下에 理事及二十七支會各代表者五十餘名이 出席하야 各種會務報告와 新設事項을 附議하고 同八時에 閉會하얏다더라(北靑)

金陵靑年會大講演

金陵靑年會主催로 去二十一日부터 二日間 朝鮮館에서 大講演會를 開催하얏는데 聽衆은 正刻前滿員의 盛況을 呈하얏다 今般 [illegible] 金泉은 慶北에서 敎育中心地가 될만하나 아즉 高等普通學校가 無함에 鑑하야 同靑年會에서 高等普通學校期成會의 設備에 及한터인데 一般은 此旨를 大 許成하야 講演會로는 空前의 盛況을 呈하게되얏더라 左記와 如히 各演士의 熱辯이 有하야 滿場聽衆에게 깁흔 感動을 與하고 無事閉會하얏더라

入生觀 鄭開寶
人類發展과 敎育 朴一秉
우리朝鮮女子의 處地 金미사 女史
文化運動과 現代敎育 金鄕鍾鳴 女史 (金泉)

[illegible]

龍川水災救濟會

사랑이 만흔신여러父老兄弟여 龍川我開川地方의 水災는 참으로 未曾有한大慘禍이오서 罹災同胞의 情狀은 實로 形言키 難한 慘境에 잇나이다 願컨대 이를 愍恤하야 罹災同胞에게 救濟의 金錢이나 物品에 힘수잇는대로 도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事務所 龍川郡龍岩浦殖産組合
集金期 十月三十一日以內
後援 東亞日報龍岩浦分局

祝郡北分局設置

晉州郡智水面勝內里 許萬正

開城郡慕隣里郡北文道 鄭職華

竹南面職員一同

山仁面職員一同

郡北面小浦里 姜大徹

郡北靑年會

郡北基督敎會

合村基督敎會

合村日新學校 趙鏞根

郡北面東村里 趙鏞璘

咸安郡守 金 [illegible]

咸安郡勸業課一同

郡北面市日 孫斗玉 孫斗醫院

郡北面市日 李冕洙

郡北面安里 安鍾澤

郡北面會計員 [illegible]

郡北面長 李洙玄

郡北面技手 李晶宰

郡北面職員一同

郡北面小浦里 黃錫植

郡北面中岩里 趙 [illegible] 九

郡北市日 代書業 趙 [illegible]

郡北面事務所 李 [illegible]

郡北市日 大東商店 東 [illegible]

郡北面小浦里 徐鍾熙

郡北面中岩里 咸 [illegible] 大

郡北面中岩里 趙 [illegible] 吉

郡北市日 安道商店

郡北面中岩里 趙鍾 [illegible]

郡北面小浦里 趙錫哲

郡北面中岩里 洪在纓

郡北面中岩里 劉 [illegible] 淳

晉州郡智水面勝內里 許南鍾

晉州郡智水面勝內里 許錦九

咸安邑內 [illegible] 東 [illegible]

郡北面[illegible] 安 [illegible]

郡北面長 朴泳萬

竹南面職員一同

竹南面[illegible] 金 [illegible] 文

竹南面[illegible] 汶 [illegible]

郡北面中岩里 [illegible]

郡北面中岩里 [illegible]

咸安面[illegible] [illegible]

伽倻面末山里 [illegible] 大 [illegible]

咸安邑內 代書業 李 [illegible]

咸安 [illegible] 趙 [illegible] 東 [illegible]

祝統營支局發展

鐵龍商會

徐相權

統營朝日町 辯護士 李冕宇

統營朝日町 慶南印刷所 專務 河桂源

統營貯畜組合

宋正宅

林轍圭

辯護士 金淇正 統營大和町

海東醫院 金尙用

統營勞働共濟會 許基輝

統營大和町 各種帽子 書籍文房具販賣商 文明書館

統營吉野町 [illegible] 統營靑年洋靴商會 主 高 [illegible]

靑年商業 金職學

統營 [illegible] 池現植

統營朝日町 雜貨商 朴賛鎬

統營 [illegible] 福田印刷所

統營吉野町 材木商 洪淳孝

郡北靑年會 [illegible]

廉裕鎭

統營朝日町 商 許鍾燁

中有奎

統營吉野町 海產物組合 共榮會

汽車

[illegible]

ClibPDF - www.fastio.com